



격동의 근 현대사를 증언하는 서대문형무소에서
소설가 조선희, 배우 오지혜, 역사학자 주진오, 바리톤 송현상이 함께 하는

<세 여자> 북 콘서트

- 일 시 2017. 9. 29. (금) 19시
- 장 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
- 주 최 서대문구 · 서대문형무소역사관
- 신청방법 QR코드 태그
또는 전화신청
(☎ 330-1115)
- 신청기간 9.11. (월) ~ 접수마감 시 까지



이야기 조선희



진행 오지혜



대담 주진오



노래 송현상

- ✓ 추첨을 통하여 신청자 중 다섯 분께 세 여자 도서를 드립니다.
- ✓ 자세한 사항은 '서대문 책으로' 블로그 참조

NAVER

서대문 책으로



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세 여자의 이야기

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
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, 박현영, 임원근, 김단야와
이들의 동지이자 파트너였지만
한 번도 조명되지 못한 세 여성 혁명가
주세죽, 허정숙, 고명자

한국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운명에 도전했던
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와 12년에 걸쳐 탄생한
작품의 뒷이야기를 조선희와 함께 나눕니다.

